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설 맞이 나눔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은 지난 13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여수시 내 지역아동센터 40여곳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사진)

이번 위문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이광일 부의장은 초록어린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한 후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명절과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전력거래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전력거래소는 14일 오전 나주 혁신도시에서 나주시·한전 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의 기관장과 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특히, 윤병대 나주시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기관장 및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력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수시로 교육하는 등 임직원들의 청렴문화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업으로 청렴수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권범 기자**



동강대-(주)국제커리어, 산학협력 업무협약

동강대학교가 재학·졸업생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돕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사진)

동강대는 최근 학교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인 (주)국제커리어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동강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사업을 비롯한 청년고용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이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자들에게 직업심리 검사와 취업진로방향 설정, 구직준비도 검사, 에니어그램 등 다양한 상담을 비롯해 일 경험, 해외 취·창업을 지원하는 'K-move' 등과 연계한 취업능력 향상 지원, 1:1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 등을 돕는다. **최동환 기자**



나주소방,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 단속

나주소방은 관내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대피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구 폐쇄 여부 등이다.

나주소방은 소방시설의 차단 및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고, 일부 시설에서 '소방시설 앞 적치물 방지', '스프링클러 밸브 고의 차단', '지하주차장 비상구 폐쇄'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관계자들에게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항식 나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구의회, 설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광주 서구의회는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사진)

광주 서구의회는 라면·후지 등 생필품과 사과·배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준비해 직접 관내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전달했다.

전승일 서구의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고 있다. **정상이 기자**



동신대, CES 2025 전남관서 전남 비전 홍보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세계 최대 규모 제품 박람회인 'CES 2025 전남관'에 참여해 전남의 글로벌 비전을 세계에 알렸다. (사진)

14일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창업동아리 학생 5명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2024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CES팀)에 선정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를 참관했다.

동신대 재학생들은 CES 전남관에서 전남의 혁신적인 기업 홍보, 통역,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전남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첨단 기술과 글로벌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견문을 넓히며 글로벌 미래 산업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쌓았다. **최동환 기자**

인사

광주시체육회 ◇승진 △노치일 안전시설본부장 △고익상 시설부장 △유성훈 안전관리팀장 ◇전보 △박치은 체육진흥부장 △임유승 염주팀장 △나성현 무등팀장

이창현 광주시수영연맹 회장 연임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

제2대 광주시수영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창현(사진) 학림건설(주)대표이사 가 제3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시수영연맹은 지난 13일 오전 서구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이창현 제3대 회장의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 단독으로 응시했다. 광주시수영연맹 선거운영위원회는 단독 입후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결격 심의를 거쳐 이 회장을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8년까지 4년 더 광주시수영연맹을 이끌게 됐다. 그는 제2대 회장으로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우수 선수 및 지도자 포상 등 연맹 발전과 선수 기량 향상, 동호인 저변 확대에 주력했으며 제3대 회장 공약



으로는 실업팀 창단과 초·중·고 육성 시스템 강화를 꼽았다.

이 회장은 "4년 더 기회를 준 것에 책임감이 무겁다. 스포츠 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연맹은 광주시수영선수권대회의 레거시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장으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광주의 숙원인 수영 실업팀 창단은 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며 "수영을 배우려는 학생은 많은데 초등학교 팀들이 없어지면서 고충이 있다. 초·중·고 수영부를 유지해 학생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헤리, 제주항공 참사 지원 위해 3천만원 기부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헤리가 선행을 펼쳤다. (사진)

유튜브 채널 '헤리' 제작진은 지난 13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헬스클럽 2024 연말파티" 상금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는 글과 함께 성금 기탁확인서를 올렸다.

성금 기탁확인서에 따르면 헤리 측은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헤리' 제작진은 "함께 해주신 게스트 분들과 헤롱이(구독자 애칭)에게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헤리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2024년 연말 파티를 열었다. 배우 박신혜, 그룹 에픽하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 가수 준박, 최예나, 댄서 리정, 방송인 파티리샤 등이 파티에 참석했다.

팀을 나눠 진행한 게임에서 '에픽하이 팀'이 승리해 상금 1500만원을 획득



했다. 헤리는 제작진과 함께 15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 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 착륙 시도 중 추락했다.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181명 중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다. **뉴시스**

레드벨벳 조이, 슬기·아이린 이어 SM과 재계약

K팝 3세대 간판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겸 배우 조이(박수영·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SM은 14일 "조이는 SM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토대로 재계약을 완료했으며, SM의 아낌없는 지원 하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이도 SM을 통해 "10년 간의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함께 해온 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다고 느꼈다"며 "SM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통해 팬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SM은 "슬기, 아이린에 이어 조이와도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 레드벨벳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 조이 그리고 배우 박수영으로서 가진 무한한 역량



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드벨벳 다른 멤버들인 웬디, 예리는 SM과 재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는 2014년 8월 레드벨벳 멤버들과 이 팀의 첫 싱글 '행복(Happiness)'으로 데뷔했다. 이후 레드벨벳은 '아이스크림 케이크(Ice Cream Cake)', '빨간 맛(Red Flavor)', '필 마이 리듬(Feel My Rhythm)', '코스믹(Cosmic)' 등 개성 강한 곡들을 히트시켰다. 지난해 9월 데뷔 10주년 기념 아시아 팬콘 투어를 성료했다.

특히 조이는 지난 2021년 스페셜 앨범 '안녕(Hello)'를 발매하고 솔로 활동도 했다. 방송 프로그램 MC는 물론, 드라마, OST,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뉴시스**